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http://www.motie.go.kr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2015년 1월 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최규종 조선해양플랜트과장, 김등용 사무관(044-203-4333)

조선해양산업인,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경제로 위기극복을 다짐
- CEO 간담회 및 2015년 신년인사회 개최 (1.8(목), 14:20~, 부산) -

□ 2015년 조선해양업계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가 열였다.

○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에는 산업부 박청원 산업정책실장, 김규옥 부산시 부시장, 김외현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 주요 조선해양 업계 인사들이 참석했다.

<조선해양업계 CEO 간담회 및 2015년도 신년인사회 개최>

○ 일시 및 장소 : '15. 1. 8. (목) 14:20~18:00, 부산 웨스틴조선H/누리마루
- (간담회) 14:20~15:30,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2층 로즈룸
- (신년인사회) 15:55~18:00,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 2층

○ 주요 참석자
- (간담회) 산업통상자원부 박청원 산업정책실장,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김외현 회장, 조선학회 신종계 회장, 조선기자재조합 박윤소 이사장 등 18명
- (신년인사회) 조선해양산업계, 학계 등 100여명

□ 이 자리에서 업계 대표들은 올해 조선해양 수주목표를 '14년 실적 대비 31.5% 증가한 553억 달러*로, 수출은 7.1% 증가한 425억 달러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하기로 결의했다.

*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 10개 회원사 기준

○ 이를 위해, 사업구조 개편, 구조조정 등 내부 혁신을 추진하면서, 미래 유망시장인 친환경 선박 등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.

□ 다만, 업계에서는 2016년 이후 LNG운반선 등 우리 주력선종을 중심으로 세계 시황이 회복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, 단기적인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* 세계 발주량전망(백만CGT, '14.9월 클락슨) : ('14) 40.6 ('15) 39.7 ('16~'19 연평균) 47.0

○ 대형 조선사의 경우, 금융위기 이후 저가로 다량 수주한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인력부족으로 인한 납기지연,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.

○ 중소 조선소사와 기자재업체 역시 국내외 일감 부족 등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이야기했다.

□ 박청원 산업정책실장은 투자환경 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해 조선해양업계를 뒷받침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.

○ 특히, 해외인력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당면한 인력난을 해소하고, 중소조선소 등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최근 노후 연안 선박 신조수요가 국내 일감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.

○ 아울러, LNG 등 친환경연료 선박 관련 산업 육성 및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화 등을 통해 미래 우리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김등용 사무관(☎ 044-203-43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